

수강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한 셀프리더십전략이 IT과목 러닝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분야 학습자중심

박기호[†] · 김연정^{††}

요 약

리더십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심리 혹은 심리학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연구 분야다. 종래의 리더십은 조직 내 경영진이나 팀리더 등의 조직책임자들에게 강조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통제 혹은 관리하여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관련 연구에 학계,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및 엔지니어링 과목을 수강한 학부재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전략이 수강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강태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여 학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조직 구성원 혹은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을 고양함으로써 과업에 임하는 태도나 수업에 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제시하여 기업 생산성이나 학업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수립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행위중심전략, 건설적 사고전략, 자연보상전략, 셀프리더십

†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조교수(교신저자)

††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조교수

논문접수: 2010년 10월 5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0년 11월 25일

본 논문은 2008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 2009-0066)

A Study on the Influence between Self-leadership Strategies and Learning Performance at IT Classes mediated by Attitude of Attendance: focused on the Social Science Students in University

Kiho Park[†] · Yeon-Jeong Kim^{††}

ABSTRACT

Many organizations have had deep interests in studies concerning leadership and also in academic area, not only management but also psychology. Until now, the leadership has been accentuated to managers or team leaders especially. Recently, however, the concept of self-leadership that lead one's own activities toward right direction through self-control or self-management is being focused on practices and academia.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between self-leadership strategies and learning performance at IT classes mediated by attitude of attendance focused on the social science students in an university. Research results can give us right direction of task-taking attitudes in firms or learning attitudes in teaching organization and implications to human resource manager who are in charge of improving learning performance or productivity

Key Words : Behavior-Focused Strategy, Constructive Thought Strategy, Leadership, Natural-Reward Strategy, Self-leadership

1. 서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종래에는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 발휘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리더 그룹에 대한 리더십(leadership)이 강조되어 왔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29][32].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등에서는 리더십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조직 내 리더들의 리더십 유형에 따라 조직의 성격과 문화가 달라지며, 생산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1][2][22]. 따라서 리더십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경영학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심리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형적으로 리더십이라는 용어는 조직 내 경영진이나 팀리더 등의 조직책임자들에게 강조되는 조직통솔 및 관리 역량이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자기통제 혹은 관리하여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관련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4][8].

본 연구에서는 IT과목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회과학분야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측정하고, 셀프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학업성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발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질수록 적절한 자기통제와 관리를 통하여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였다[7][9][27][32]. 따라서 연구의 표본으로는 사회과학대학에서 디지털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정보기술관련 과목의 수강시 셀프리더십이 수강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할 경우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구대상인 디지털비즈니스 전공학생들의 학업배경은 고등학교 문과과정이며, 학부과정에서 수강하는 과목은 주로 경영학과 정보기술관련 과목이다. 정보기술과목은 엔지니어링 분야의 성격을 가진 과목으로 사회과학분야 전공 학생들이 수강과목에 대한 난이도가 높다고 인지하고 있어 학습노력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대상과목으로는 ‘데이터베이스구축’, ‘e비즈니스 시스템분석 및 설계’, ‘컴퓨터 보안’, ‘경영통계학’ 등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두 학기에 걸쳐 2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 탐색적 연구단계에서는 한 학기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정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강태도와 학업성공간의 인과관계도 분석한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이 직접적으로 학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강태도의 경우 학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셀프리더십이 수강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강태도가 결국 학업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결집하였다. 따라서 다음 학기로 이어지는 2차 연구단계는 표본수를 보강하고, 연구모형을 변경하여 셀프리더십전략의 유형에 따른 수강태도와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수강태도가 학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즉 셀프리더십과 학업성공간 수강태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매학기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측정도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항목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대상의 성격에 맞게 약간의 수정 후 사용하였다.

연구의 주요목적은 특정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셀프리더십이 학업성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개인의 셀프리더십을 고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학업성공을 높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결과는 학업성공 증대를

위한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1차 연구에 이은 2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하여 일반화 수준을 높여갈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셀프리더십 전략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의 이행 전략은 행위 지향적 전략(behavior-focused strategies), 자연보상전략(natural reward strategies), 그리고 건설사유적 전략(constructive thought strategies) 등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25][27][32].

셀프리더십은 스스로에 대한 독립성, 자긍심, 주어진 직무 혹은 과제수행에 대한 자발적 만족감, 자기 효능감[†],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의 자기고양 등의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27][32]. 특히 자기 효능감은 특정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자기 효능감을 만들어 내는 기반으로 는 첫째,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 자신이 무언가를 달성하거나 성공한 경험 달성 체험, 둘째,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달성하고 성공하는 행위를 관찰하는 대리 경험, 셋째, 언어적인 격려, 본인의 능력에 대한 설명을 듣는 언어적 설득, 넷째, 술 등의 약물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동기부여 하는 생리적 정서적 고양 등을 들 수 있다 [12][13][16].

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의 요인들로 미래

에 대한 명확한 비전수립,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자기노력, 학업성과의 고취를 위한 수업준비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상의 논점에 기반을 두어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H1): 학습자들의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높을수록 비전수립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H2): 학습자들의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노력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H3): 학습자들의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업준비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1 자연보상전략

자연보상전략은 특정 과업이나 행위로부터 즐거움을 느낌으로서 보상을 받거나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다 [25][27]. 즉 자연보상전략은 과업수행을 통해 추가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느낌으로서 과업수행 자체가 자연적 보상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태도와 윤택하지 않은 일에는 관심을 멀리하려고 하면서 과업에 내재된 보상을 기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둘 다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과 적성(competence)과 연계되는 전략으로 자신에게 내재된 동기부여의 메커니즘이다[6][14]. 이는 과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힘을 불어넣는 행위이며, 자기결정능력과 역량을 고양하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18][19].

가설1-1(H1-1): 자연보상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비전수립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1(H2-1): 자연보상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자기노력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1(H3-1): 자연보상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수업준비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自己效能感, self-efficacy)은 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이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앨버트 밴두라(Albert Bandura)가 제시한 개념이다. 결과 예상치과 효능 예상치로 구분된다. 결과 예상치는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인가에 대한 예상치이며, 효능 예상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행동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치이다.

것이다.

2.1.2 행위중심적 전략

행위중심적 전략이란 즐겁지 않은 일이라 할 지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수행해야 한다는 자기 행동관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아인지(self-awareness)의 수준을 높이는 전략이다 [25][33][35]. 행위중심적 전략에는 자기관찰(self-observation), 자기목표설정(self-goal setting), 자기보상(self-reward), 자기징벌(self-punishment), 그리고 자기암시(self-cueing) 등을 포함한다.

자기관찰이란 자신이 특정행위에 몰두하는 시점 혹은 이유에 대해 자기인식(self-awareness)의 정도를 높이는 행위이다, 이 같은 자기인식은 자신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다[21][22][25][26]. 자신의 행위와 과업에 대한 성과수준을 잘 알고 있는 경우일 수록 자신의 행위와 목표의 연계성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24]. 실제적으로 자신의 성과수준을 도전적으로 설정한 경우에 성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제시되었다[17]. 자기보상은 자기목표설정과 아울러서 자신의 성과달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유도하는 요인들이다[20][21][25][26]. 자기보상이란 중요한 일을 무사히 마쳤거나 어려운 프로젝트를 끝낸 이후에 휴가를 가거나 정신적인 자기격려 등 자신에 대한 무형의 보상 행위를 의미한다[28]. 자기징벌이란 원치 않았던 행위나 실패에 대한 자기 내면적 성찰과 잘못된 행위를 올바르게 판단하는 형태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행위중심전략이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긍정적이고도 바람직한 행위를 고무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학업성과를 얻기 위한 바람직한 행위로 비전수

립, 자기노력 그리고 수업준비로 설정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1-2(H1-2): 행위중심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비전수립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H2-2): 행위중심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자기노력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2(H3-2): 행위중심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수업준비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3 건설사유전략

건설사유적전략은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사고하는 습관과 건설적으로 사고하도록 의도하는 전략이다[25][28][30]. 건설적 사고란 비합리적 신뢰나 부정적 가정을 긍정적인 자기설득(self-talk)이나 정신적 심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즉 불합리한 믿음이나 가정을 보다 건설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유형을 결정짓고자 하는 것이다 [3][10][25][30][36]. 또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자기설득을 보다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로 대체한다[34]. 정신적인 심상은 실제 행동으로 발현되기 이전에 특정한 경험이나 과업에 대한 숨은 인식의 세계라 할 수 있다. 과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성공적인 성과를 희망하는 개인일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실제 과업에 직면하였을 때 훨씬 더 성공적으로 완수한다 [25][37]. 결국 특정과업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사고하는 개인의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설1-3(H1-3): 건설사유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비전수립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H2-3): 건설사유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자기노력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3(H3-3): 건설사유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일수록 수업준비정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셀프리더십과 성과

셀프리더십은 개인의 독립성, 긍정적인 정서, 직무에 대한 만족, 자기 효능감, 그리고 개인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27][32]. 셀프리더십을 주제로 한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이 조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9][32][38].

대다수의 조직들 특히 기업조직들의 경우 종업원들의 생산성과 과업성과를 극대화 하는 것에 관심을 보여 왔다. 기업은 공통적으로 종업원들의 질적, 양적생산성의 감소, 종업원의 직무불만족 증가, 이직률 증대와 태업 등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들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5]. 이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게 되었으며, Hackman(1986)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기관리 과업집단(self-managed work groups) 개념을 제안하였다[15].

조직 구성원이 아닌 개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인의 독립성, 긍정적 정서, 학업에 대한 만족도, 자기 효능감 등의 셀프리더십 구성요소들이 높은 정도를 보일 경우 학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H4): 미래비전수립의 명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5(H5): 자기노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가 높을 것이다.

가설6(H6): 수업준비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가 높을 것이다.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집단구성원들과의 협력과 자기 스스로의 관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팀 단위의 과업목표 관리의 경우

조직 내 속한 구성원 개개인의 업무에 임하는 태도와 사고방식, 팀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 팀의 발전과 자신의 발전사이의 격차 등에 대한 개별적 요인들이 개입될 소지가 많다. 따라서 최근에는 셀프리더십 즉 인간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각자 처해진 상황 속에서 존재의 가치 발휘를 위하여 자기관리 및 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 스스로 동기유발하게 하는 자유의지의 발현현상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국 셀프리더십이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23].

학습자의 경우 역시 상기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7(H7): 셀프리더십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1(H7-1): 자연보상적전략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2(H7-2): 행위중심적전략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7-3(H7-3): 건설사유적전략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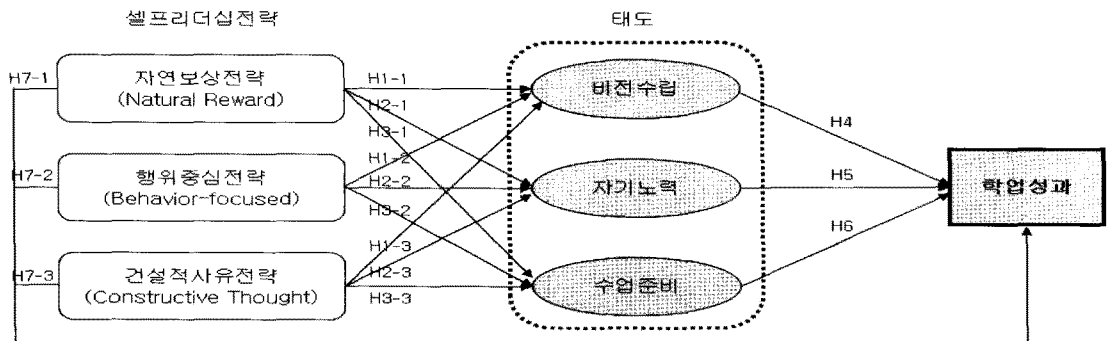
앞서 서술한 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예측변수는 셀프리더십의 3가지 구성전략 즉 자연보상적전략, 행위중심적전략, 그리고 건설사유적전략으로 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수강태도 즉 비

전수립, 자기노력, 수업준비요인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로는 IT과목 즉 데이터베이스구축, 컴퓨터보안, e비즈니스 시스템개발, 경영통계학 등 4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적으로 하였다.

3.2 연구방법

H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개설된 수업을 수강하는 2,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한 표본 집단은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학생들 중 IT와 통계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강과목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컴퓨터 보안', '경영통계학', 그리고 '시스템개발론'이었다. 응답자들은 이공계 학생들이 아닌 문과에 속하였으며, 이공학적인 학습배경이 미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응답자들로부터 설문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분석은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통계적 분석기법으로는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Simple/Multiple Regression 등을 이용하였다. 응답에 참여한 표본은 총 121명으로 데이터베이스구축 수강생 5명(4.1%), 컴퓨터보안 17명(14.1%), 시스템 분석 및 설계 20명(16.5%), 경영통계학 79명(65.3%)이었다. 학년은 3,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고, 남학생 80명(66.1%)여학생 41명(33.9%)이었다.

3.3 측정도구 및 조작적 정의



[그림 1] 연구모형

셀프리더십전략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Manz(1985)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였으며, 질문항목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문구를 연구대상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각 문항의 측정척도는 Likert 5점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표본이 소속된 학교의 강의평가 기준을 참조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3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수강태도(비전수립정도, 자기노력정도, 수업준비정도)를 측정하여 셀프리더십 전략과 학업태도와와의 관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인 학업성과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백점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3.4 신뢰성과 타당성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30개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법은 주성분분석으로 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은 베리맥스법을 적용하였다. Nunnally(1978)에 의하면 측정항목의 신뢰성 판단기준은 크론바하 알파 값의 권장기준이 0.6이상이며, 사회과학분야에서는 0.6미만인 경우에는 신뢰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NR(자연보상)과 BF(행위중심), 그리고 건설적 사유(CT)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항목은 <표 2>와 같다.

〈표 1〉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자기 발전 전략(셀프리더십)	
1	나는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2	나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않도록 메모나 필기를 해둔다.
3	나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내가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칭찬해 준다.
5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해본다.
6	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일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7	나는 공부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옆에 둔다.
8	나는 내가 세운 목표를 꼭 달성하고 싶다.
9	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획득하여 기분 전환을 한다.
10	나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머릿속으로 연습해 본다.
11	나는 내가 공부하는 중간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본다.
12	나는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는다.
13	나는 공부할 때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14	나는 과제를 잘 해냈거나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보상한다.
15	나는 도전적인 과제를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한다.
16	나는 주어진 과제중 제일 즐거운 과제가 무엇인지 안다.
17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과제를 할 수 있도록 정한다.
18	나는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무엇인지 찾고 싶다.
19	나는 내가 하는 일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생각한다.
20	나는 공부의 결과보다 공부하는 과정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1	나는 내가 하는 공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가 무엇인지 안다.
22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선 내 주변을 정돈한다.
23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싶다.
24	나는 과제를 할 때 싫은 면보다 좋은 면을 더 생각한다.
25	나는 공부를 할 때 성적보다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26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27	가능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일 혹은 공부를 하고 싶다.
28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다.
29	나는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안 좋은 면보다 좋은 면에 초점을 맞춘다.
30	나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보다 일을 실제로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한다.
31	나는 가까운 미래, 혹은 좀 더 먼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이 명확하게 서 있다.
32	나는 이번 학기 강의를 들으면서 힘껏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33	나는 수업준비를 많이 하고 수업에 참석하였다고 생각한다.

〈표 2〉 성분 행렬

항 목	성분			Cronbach Alpha	Eigen Value
	NR*	CT*	BF*		
26.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755			.6552	5.279
21. 나는 내가 하는 공부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가 무엇인지 안다.	.727				
28.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한다.	.632				
29. 나는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안 좋은 면보다 좋은 면에 초점을 맞춘다.		.762		.7840	2.648
20. 나는 공부의 결과보다 공부하는 과정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742			
30. 나는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보다 일을 실제로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한다.		.737			
19. 나는 내가 하는 일의 단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생각한다.		.607			
25. 나는 공부를 할 때 성적보다는 공부를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606		.6807	2.074
15. 나는 도전적인 과제를 하기 전에 미리 연습을 한다.			.776		
6. 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의 일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698		
10. 나는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머릿속으로 연습해 본다.			.693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CT-Constructive Thought, BF-Behavior Focused, NR-Natural Reward

정도와 학업성과와는 부의 상관이 나타나 추가적인 분석의 여지를 남겼다.

4. 연구결과

4.1 변인간 상관관계

셀프리더십 전략과 수강태도, 그리고 학업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셀프리더십 전략유형과 수강태도 간 상관관계분석결과 자연보상, 행위중심과 건설적인 사고와 비전수립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학업성과와는 부의 상관을 보였다. 건설적 사고와 행위중심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의 경우는 자기노력과 정의 상관을 보였고, 수업준비의 정도는 건설적 사유를 하는 학습자와 유의미한 정의 상관을 보였다. 두 번째로 셀프리더십전략과 학업성과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셀프리더십 유형이 학업성과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수강태도 요인 중 자기노력의 정도와 학업성과와는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전수립의

〈표 3〉 변수들간 상관계수

	AP	VSN	ED	PP	NR	BF
AP	1.000					
VSN	-.208*	1.000				
ED	.299**	.159	1.000			
PP	.132	.245**	.624**	1.000		
NR	-.088	.387**	.079	.119	1.000	
BF	.017	.185*	.222*	.254**	.244**	1.000
CT	-.111	.321**	.310**	.157	.233*	.202*

* p< 0.05, ** p< 0.01, AP-학업성과, VSN-비전수립, ED-자기노력, PP-수업준비, NR-자연보상, BF-행위중심, CT-건설적사고

4.2 셀프리더십과 수강태도

셀프리더십의 유형에 따라 수강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가지 수강태도와 셀프리더십 전략 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셀프리더십과 비전수립정도간 회귀계수

4.2.1 셀프리더십과 미래비전수립

비전수립의 명확성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의 귀무가설은 $H_{0i}: \beta_i = 0$ 이며, 대립가설(H_A)은 '모든 회귀계수 β_i 가 0은 아니다'로 설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206$ 으로 20.6%의 설명력을 보였다. 분산분석 결과 모형은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표 4> 분산분석표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선형회귀분석	27.998	3	9.333	9.765**
잔차	108.002	113	.956	
합계	136.000	116		

**p < 0.01

자연보상과 건설적 사유를 하는 학습자들일수록 미래에 대한 비전수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상의 경우 유의수준 = 0.05 (p - value = 0.011)에서 건설적 사유를 하는 경우는 = 0.01 (p - value = 0.001)에서 수강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위중심적 유형의 학습자들의 경우는 비전수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자연보상과 건설적 사유를 하는 학습자들일수록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는 모두 10.0이하로서 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가설 H1-1과 H1-3은 채택되었다.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t	TOL	VIF
(상수)	-.071	.644		-.110		
NR	.446	.126	.313	3.538**	.897	1.115
BF	.109	.150	.064	.732	.922	1.085
CT	.351	.136	.227	2.585*	.912	1.097

*p < 0.05, **p < 0.001

4.2.2 셀프리더십과 자기노력

수강태도중 자기노력을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124$ 로 12.4%의 설명력을 보였다. 분산분석 결과 모형은 유의확률 값이 .002로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표 6> 분산분석표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선형회귀분석	14.410	3	4.803	5.318**
잔차	102.069	113	.903	
합계	116.479	116		

**p < 0.01

셀프리더십 전략중 건설적 사유를 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유의수준 = 0.01 (p - value = 0.003)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으며, 건설적 사유를 하는 경우는 자기노력의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연보상과 행위중심적 유형의 학습자들의 경우는 자기노력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건설적 사유를 하는 학습자들일수록 수업에 입하는 자기노력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는 모두 10.0이하로서 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가설 H2-3은 채택되었다.

〈표 7〉 셀프리더십전략과 자기노력간 회귀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TOL	VIF
(상수)	1.143	.626		1.825		
NR	-.048	.122	-.036	-.389	.897	1.115
BF	.274	.145	.173	1.883	.922	1.085
CT	.407	.132	.284	3.083**	.912	1.097

**p< 0.01

4.2.3 셀프리더십과 수업준비

수강태도중 수업준비의 정도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077$ 로 7.7%의 설명력을 보였다. 분산분석 결과 모형은 유의확률 값이 .027로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표 8〉 분산분석표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선형회귀분석	9.714	3	3.238	3.159*
잔차	115.842	113	1.025	
합계	125.556	116		

*p< 0.05

셀프리더십 전략중 행위중심적인 학습자들의 경우 유의수준 = 0.05 (p - value = 0.019)에서 귀무가설이 채택되었으며, 이는 행위중심적 셀프리더십 경향을 보이는 경우는 수업준비의 정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셀프리더십 전략과 수업준비간 회귀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TOL	VIF
(상수)	1.178	.667		1.766		
NR	.054	.130	.040	.417	.897	1.115
BF	.368	.155	.223	2.372*	.922	1.085
CT	.151	.141	.102	1.074	.912	1.097

그러나 자연보상과 건설적 사고 유형의 학습

자들의 경우는 수업준비의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행위중심적인 학습자들일수록 수업준비를 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 VIF는 모두 10.0이하로서 변수들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가설 H3-2는 채택되었다.

4.3 수강태도와 학업성과

수강태도가 학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학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R^2 = .157$ 로 15.7%의 설명력을 보였다. 분산분석 결과 모형은 유의확률 값이 .000으로 유의 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표 10〉 분산분석표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선형회귀분석	1458.399	3	486.133	7.037** *
잔차	7806.524	113	69.084	
합계	9264.923	116		

***p< 0.001

학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고 수강태도(비전 수립, 자기노력, 수업준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전수립 변수 (= 0.01;p - value = 0.004)와 자기노력 변수 (= 0.01;p - value = 0.002)가 학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노력의 경우는 학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즉 자기노력을 많이 할수록 학업성과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비전수립의 경우는 학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응답자 자신들이 비전수립은 명확하게 했다고 응답을 하였으나 학업성과가 높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라고 추측하거나 또는 비전수립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학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자기노력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비전수립이 명확하게

나 불명확하다고 해서 반드시 학업성과가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으로는 응답자들중 비전수립이 명확한 학생들의 경우 현재 자신이 소속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학업에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업준비를 많이 하는 경우 학업성과가 잘 나올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수업준비와 성적 간에 정의 영향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즉 응답자들이 수업준비는 나름대로 잘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학업성과를 좌우하는 시험 준비에 입하는 자세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수립과 함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차관계는 모두 0.1이상, VIF는 모두 10.0이하로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따라서 H5는 채택되었으나 H4와 H6은 기각되었다.

〈표 11〉 수강태도와 학업성과간 회귀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TOL	VIF
(상수)	80.639	3.198		25.218		
VSN	-2.133	.735	-.258	-2.901**	.940	1.064
ED	3.196	.985	.358	3.243**	.611	1.637
PP	-.246	.967	-.029	-.255	.589	1.698

**p<0.01

4.4 셀프리더십과 학업성과

셀프리더십이 학업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셀프리더십전략을 독립변수로 하고, 학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 = .770$, $p - value = .513$). 셀프리더십과 학업성과간 회귀계수도 유의수준 1%와 5%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셀프리더십과 학업성과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표 12〉 분산분석표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선형회귀분석	183.465	3	61.155	.770
잔차	9289.891	117	79.401	
합계	9473.355	120		

〈표 13〉 셀프리더십과 학업성과간 회귀계수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TOL	VIF
(상수)	88.388	5.784		15.281		
NR	-.879	1.083	-.078	-.812	.905	1.105
BF	.809	1.358	.057	.596	.918	1.089
CT	-1.340	1.228	-.104	-1.091	.923	1.083

5. 가설검정과 논의사항

가설검정결과 비전수립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셀프리더십 전략유형으로는 자연보상과 건설사유적 응답자의 경우로 자신의 학업활동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로부터 보상을 받으며, 동기부여 하는 유형의 학습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수립을 명확히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사고하는 습관과 건설적으로 사고하는 학습자의 경우도 비전수립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셀프리더십 전략유형중 건설적으로 사유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자기노력을 충실하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성과에 대해 긍정적 사고를 하는 학습자들이 자기노력에도 충실하게 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수업준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행위중심적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였다. 즉 행위중심이란 즐겁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수행해야 한다는 행동관리를 중시하는 학습자일수록 수업준비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가설검정결과 요약표

구분	가설	채택여부
H1-1	자연보상->비전수립	채택
H1-2	행위중심->비전수립	기각
H1-3	건설사유->비전수립	채택
H2-1	자연보상->자기노력	기각
H2-2	행위중심->자기노력	기각
H2-3	건설사유->자기노력	채택
H3-1	자연보상->수업준비	기각
H3-2	행위중심->수업준비	채택
H3-3	건설사유->수업준비	기각
H4	비전수립->학업성과	기각
H5	자기노력->학업성과	채택
H6	수업준비->학업성과	기각
H7 (H7-1,2,3)	셀프리더십전략->학업성과	기각

한편 학업성과와 수강태도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기노력을 많이 하는 학습자일수록 학업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래비전 수립의 명확도는 학업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겐 여러 가지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응답자가 비전수립을 명확하게 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학업성과가 낮게 나온 경우와 다른 하나는 비전수립의 명확도는 낮지만 학업성과가 높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비전수립과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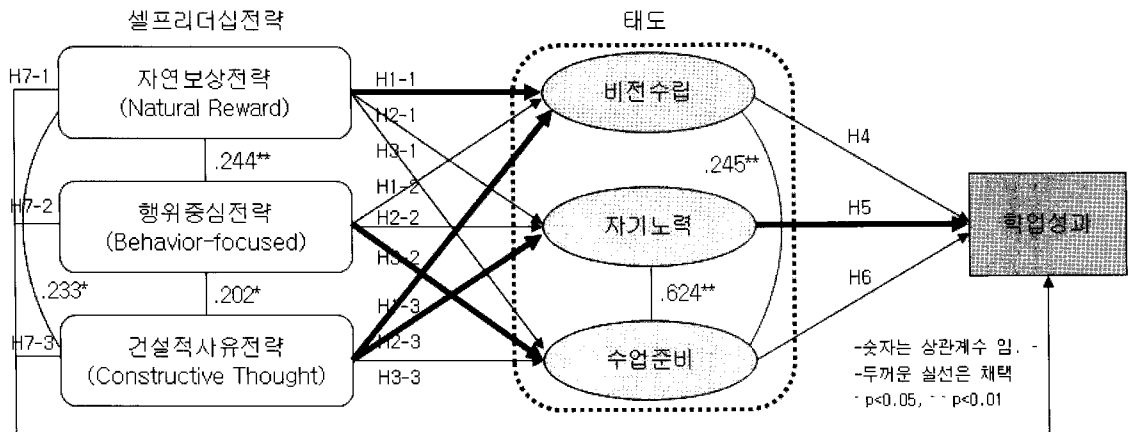
한 측정도구를 다시 개발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셀프리더십을 개발해주고, 바람직한 수강태도를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림 2]는 가설검정결과를 반영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건설적 사유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들의 경우 자기노력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학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셀프리더십 전략과 학업성과와는 직접적 영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두 변인간에는 수강태도와 같은 매개변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같은 매개변인을 발굴하여 학습자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셀프리더십전략 변수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셀프리더십 전략 간에는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특정 전략을 지향하는 경우 다른 전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자연보상적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들은 건설적으로 사유하거나 행위중심적전략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행위중심전략 지향의 학습자들은 자연보상적이거나 건설사유적일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도변수들간에도 자기노력과 수업준비



[그림 2] 가설검정결과 연구모형

변수 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을 보여 두 변수간 상호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있는 학습자들의 경우 수업준비도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사회과학대 재학 중인 학생들이 엔지니어링 성격의 IT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셀프리더십 전략 유형과 수강태도간의 인과관계와 수강태도와 학업성과간의 인과관계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 개인의 셀프리더십 전략유형과 수강태도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수강태도를 위해서 가져야 하는 셀프리더십전략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강태도와 학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수강태도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이 같은 연구결과는 학습자들의 학업성과 증대를 위한 학습전략개발방법론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과학대학 재학 중인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학습의 난이도가 높은 정보기술 관련 엔지니어링 과목에 대해 탐색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일반 전공과목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습자개인이 지향하는 셀프리더십전략과 수강태도간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자연보상전략과 건설적으로 사고하는 학습자의 경우 수강태도중 미래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수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둘째, 수강태도중 자기노력을 많이 하는 학습자의 경우는 주로 건설적으로 사고하는 학습자들이었다. 즉 건설적 사고란 '비합리적 신뢰나 부정적 가정을 긍정적인 자기설득(self-talk)이나 정신적 심상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3][10][25][30]'라는 정의를 바탕으로 유추할 때 학습자들은 긍정적 자기설득을 통하여 난이도가 다소 높은 과목이라 하더라도 학습 성과를 기대하며, 자기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행위중심전략을

지향하는 학습자들일 수록 수업준비를 착실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중심적전략의 특징은 즐겁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면 수행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25]. 따라서 행위중심적 성향의 학습자의 경우 수업준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수강태도 변인과 학습자의 학업성과간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첫째, 미래에 대한 비전과 학습자의 학업성과간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자신의 소속 학과, 전공과 자신의 미래상을 명확히 할수록 학업성과가 높아진다는 가정에 반대되는 결과로 미래 비전의 명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세부 도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미래희망 직업군이나 자신에 대한 장래상의 명확한 수립 등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수강과정에서 자기노력을 철저하게 하는 경우 학업성과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자기노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 효능감이 명확하지 않은 20대 초중반의 학습자들의 경우는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학습현장의 피학생들의 학습의욕고취를 위한 전략마련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가 특정 대학의 특정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사회과학대 소속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표본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또한 과목의 난이도가 높아 수강생 수가 적어 표본의 수가 많지 않았던 점도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측정도구의 경우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나 본 연구의 경우 수강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비전수립, 수업준비, 수강을 위한 개인노력의 정도는 한 개의 항목만으로 제시되어 설문항목의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결과의 보편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는 표본의 범위를 사회과학대 소속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공계, 예술계로 확장하여 전공별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또한 지역적 차이 여부를 검증해볼 수도 있다. 예컨대 서울지역, 경기지역, 충청지역 등의 학생들간 셀프리더십과 수강태도간 영향요인의 차이, 수강태도와 학업성과간 영향요인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학교 학습자중심이 아닌 기업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과 근무태도와 관계, 그리고 근무태도와 근무성과간 관계 등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측정도구의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추가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Andrasik, Frank, and Judy S. Heimberg(1982), "Self-management procedures." In L. W. Frederiksen(ed.), *Handbook of Organizational Behavior Management*: 219-247. New York: Wiley.
- [2] Bandura, A.(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 [3] Burns, D.D. (1980), *Feeling Good: The New Mood Therapy*, William Morrow, New York, NY.
- [4] Cummings, T.(1978), "Self-regulated workgroups: A socio-technical synthesi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 625-634.
- [5] Cummings, T., and Malloy, E. S.,(1977), *Improving Productivity and the Quality of Work Life*. New York
- [6] Deci, E. and Ryan, R. (1985), "The support of autonomy and control of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3, pp. 1024-37.
- [7] Dolbier, C. L., Soderstrom, M., and Steinhardt, M. A.(2001),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leadership and Enhanced Psychological Health and Work Outcomes", *Journal of Psychology*, 135(5), 469-475.
- [8] Donabedian, B., McKinnon, S. M., Bruns Jr., W. J.(1998), "Task Characteristics, Managerial Socialization, and Media Selection," *Management Communication Quarterly*, Vol. 11, No. 3: 372-400.
- [9] Donald, F. C.(1967), *Risk Taking and Information Handling in Consumer Behavior*, Boston, Harvard University.
- [10] Ellis, A. (1977), *The Basic Clinical Theory of Rational-Emotive Therapy*, Springer-Verlag, New York, NY.
- [11]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585-600.
- [12]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Vol. 7: 114- 140.
- [13] Fulk, J.(1993), "Social Construction of Communication Technology",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36, No. 5: 921-950.
- [14] Fulk, J., Boyd, B.(1991), "Emerging Theories of Communication in Organizations", *Journal of Management*, Vol. 17, No. 2.
- [15] Hackman, J. R.(1986), "The psychology of self-management in organizations." In M. S. Pollack and R. O. Perloff(eds.). *Psychology and Work: Productivity Change and Employment*, 85-13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ko.wikipedia.org/wiki/%EC%9E%90%EA%B8%B0_%ED%9A%A8%EB%8A%A5%EA%B0%90(2009)
- [16] Locke, E.A. and Latham, G.P. (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and Task Performance*,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 [17] Lord, Robert G., R. J. Foti, and C. L. De Vader(1984), "A test of leadership categorization theory: Internal structure, information processing, and leadership percep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34: 343-378.
- [18] Luthans, Fred, and Robert Kreitner(1975), *Organizational Behavior Modificati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 [19] Mahoney, M.J. and Arnkoff, D.B. (1978), "Cognitive and self-control therapies", in Garfield, S.L. and Borgin, A.E.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Therapy Change*, Wiley, New York, NY, pp. 689-722.
- [20] Mahoney, M.J. and Arnkoff, D.B. (1979), "Self-management: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in Brady, J.P. and Pomerleau, D. (Eds), *Behavioral Medicine: Theory and Practice*, Williams and Williams, Baltimore, MD, pp. 75-96.
- [21] Manz, C. C. and Sims Jr., H. P.(1987), "Leading Workers to Lead Themselves: The External Leadership of Self-Managing Work Tea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2, 106-128.
- [22] Manz, C. C.(1985),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 585-600.
- [23] Manz, C.C. (1986),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es in organizatio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11, pp. 585-600.
- [24] Manz, C.C. and Neck, C.P. (2004), *Mastering Self-Leadership: Empowering Yourself for Personal Excellence*, 3rd ed., Pearson Prentice-Hall, Upper Saddle River, NJ.
- [25] Manz, C.C. and Sims, H.P. Jr (1980), "Self-management as a substitute for leadership: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 5, pp. 361-7.
- [26] Manz, C.C. and Sims, H.P. Jr (2001), *New Superleadership: Leading Others to Lead Themselves*, Berrett-Koehler, San Francisco, CA.
- [27] Neck, C. P. and Houghton, J. D.(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21, No.4, 270-295.
- [28] Neck, C. P., Stewart, G. L., and Manz, C. C.(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Vol. 13, No. 3, 278-302.
- [29] Neck, C.P. and Manz, C.C. (1992), "Thought self-leadership: the impact of self-talk and mental imagery on performa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2, pp. 681-99.
- [30] Nunnally, J.(1978), *Psychometric Theory*, McGraw-Hill.
- [31] Prussia, G. E., Anderson, J. S. and Manz, C. C.(1998), "Self-leadership and performance outcomes: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elf-efficacy",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Vol. 19, No. 5, 523-538.
- [32] Salancik, G. R., Pfeffer, J.(1978),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Job Attitudes and Task Desig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23: 224- 252.
- [33] Seligman, M.E.P. (1991), *Learned Optimism*, Alfred Knopf, New York, NY.
- [34] Shook, D. E.(1988), "A Structural Equivocalness and Contingency Theory Perspective on Media Use and Communication Performance: The Case of Voice Messaging",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 [35] Teport." In J.G.Humand, L. L, Larson (eds.).
Crosscurrents in Leadership: 164-200,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36] Warren E. W.(1998), "Group Interaction
Behaviors that Affect Group Performance on
an Intellective Task", Group & Organization
Studies, Vol 13, No 4.
- [37] Yuki, Gary A., and Wayne Nemeroff (1986),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specific
categories of leadership behavior: A
progress".



박 기 호

1986 부산대학교
계산통계학과 (이학사)
1988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공학석사)

2004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2005 현재: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보시스템 평가 및 라이프사이클, 프
로젝트관리, 시스템설계
E-Mail : khpark@hoseo.edu



김 연 정

1989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학사)
1991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 (석사)

1998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 박사
2005 현재: 호서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조교수)
관심분야: 소비자경영정보, 창업, 하이테크마케팅
E-Mail : yjkim@hoseo.edu.